

梨
木

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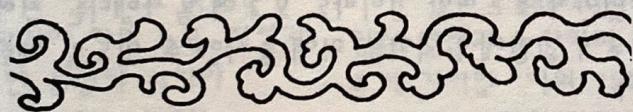
7
1984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Washington D.C. Area



차례

목 록	1
권 두 사	유 연담 2
정 의숙 총장님의 편지	정 의숙 총장님 3
직장의 하루	이 순영 4
시 "학구"	한 순정 5
그리운 조 정자 선생님	김 정현 6
김 옥길 명예 총장님의 고사리 마을	최 신혜 7
동창회에 첫발을 드려놓은 그 날을 회상하면서	유 연담 10
도서관 건립기금 의상포	임수영, 이경자 12
김 옥길, 김 동길 고수 님의 역신톤 방문	한 순정 14
시 "재회"	한 순정 16
역대 회장 기록	편집부 17
동창소식	편집부 19



천 두 사

유연담

•이원•을 내면서

오랫만에 •이원•을 내게된 우리의 기쁨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원•을 통해서 우리 회원들이 서로 소식을 나누게 되고 또 친밀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년 혹은 그 이상을 같은 캠퍼스를 거닐었으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안에서 자라온 우리들이 캠퍼스를 떠난지 오래지만은 계속하여 우리의 정을 나눌 수 있는 동창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해, 4월 창립 100주년 기념도서관 건축 기금 모금을 위하여 (유니온 매달을 받으시기 위하여 뉴욕에 오심) 김 옥길 총장께서 7년만에 워싱턴을 방문하셨을 때, 이화의 식구 모두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선생님과 일행을 영접하고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선생님의 짙었던 스케줄로 인해서, 같이 지내고 싶어하시는 많은 분들의 열광적인 환영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못 해드린 점을 이 지면을 통해서 사과드립니다.

또한 도서관 건축 기금 모금을 위한 Benefit Dinner & Fashion Show를 성대히 끝을 맷기 위해 주신 임원, 디자이너, 모델, 회원과 부군 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일을 할 때에 어려움과 고통스러움이 많이 있지만, 이화의 딸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쁨으로 할 때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인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모고에 봉사했다는 점에서 기쁨을 가지시기 바라며 우리 모-두가 건강해서 이화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

27년전, 워싱턴지구에 처음으로 동창회를 설립하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꾸준히 도와주셔서 오늘의 동창회로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 순영, 김 순악, 한 예경 선배님들의 공로를 또한 잊을 수가 없읍니다.

•이원•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주신 문학부 이 도실 부장, 김 민애, 한 순정, 최 신혜, 김 경애 제씨와 특별히 이 모-든 것을 맡아서 타이프를 해주신 윤 미경씨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이원•이 찾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끊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정의숙 총장님의 편지

Washington 동창회 여러분께.

먼저 모교의 성장과 힘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동창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
입니다.

100년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학문의 전당으로 이어온 이화는 모교를
사랑하시는 동찬님들의 열띤 성연과
이화를 아끼시는 후원자들의 정성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발맞추어
발전을 거듭해 왔읍니다.

지금 이화는 세계적인 대열에 설
수 있는 거목으로 성장해 왔읍니다만
과학문명의 첨단을 걷는 오늘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창조적 미래의 장을
열기 위해서는 보다 예리하고 폭넓은
학문의 전당이 되어야 하며 높은 지성과
인격도 야의 훌륭한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화는 끝없는
전진의 대열에서 보다 힘찬 도약과
웅비의 미래를 맞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이 거대한
작업은 오로지 이화의 모든 식구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굳건히 뭉쳐진
임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Washington 동창 여러분.
여러분은 이화의 모든 동창과 더불어
이화의 어제를 기억하고, 이화의
오늘을 다지며, 이화의 빛나는 미래를
성취할 수 있는 밑거름이라고 생각
합니다.

숭고한 그리스 도의 가르침과 이념의
교육을 받고 매일 매일의 생활을
값지게 보내시는 Washington 동창
여러분, 여러분의 이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에 대하여 참으로 마음
든든함을 느낍니다. 또한 모교의
발전을 끝없이 기원하는 여러분의
뜨거운 성연에 대하여 다시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Washington 동창회의
힘찬 발전과 동창회의 홍보를 위해
크게 기여할 "이연"지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아울러 Washington
동창 여러분 한분 한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함께 하시어 축복의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983년 10월 19일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정의숙

직장의 하루

이순영

내가 도서관 근무한 지가 어느듯
20년이나 되었다. 지금은 새 건물로
옮겨왔고 건물이 아도 커서 누가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이다. 또 옛날에는 매일 만나던
사람들도 다 어디로 흘어졌는지.
승강기가 너무 여러곳에 있는 까닭도
있고 하여 전에 항상 만나던 사람들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다.

나의 생의 삼분의 일의 시간을
바친 이 직장에서 여러가지로 인생의
공부를 많이 했다고 본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20명 가량
되는 데 모두 각자가 장점, 단점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도 배우는 것과
교훈 받는 것이 여러면으로 많이 있다.
그마운 일인줄 알고 감사한다. 그중
에서도 내가 깊이 감명받은 한가지
이야기를 오늘은 간단히 쓰려고 한다.

십오·육년전 이야기다.(새 건물
로 이사오기 전에) L.C. (국회도서관)
에는 앞못 보는 소경들이 일하는 부문도
있어 여러 사람들의 앞못 보는 이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독특하게
한사람은 내가 도무지 잊어 버리질
못한다. 아침 승강기를 타면
빈틈없이 빽빽이 사람들 이 서있는
거기서 한 경쾌한 멜로 디의 휘파람소리
가 들려왔다. 어떤 분이 아침부터
상당히 기분이 좋구나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니 그 주인공은 판사람이 아니고
앞못 보는 젊은 청년이 지팡이를 두손으로
집고 서서 그 얼굴에는 평화와 즐거움이
가득 찾고 또 가끔 옆에 선 사람들에게

워트 있는 농담을 걸어 사람을 웃기어
우리 눈 뜬 사람을 이 무색할 정도로
즐거운 기분이다.

주위에 서있는 두 눈이 멀쩡한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무뚝뚝
하던 그들의 얼굴에서도 이 앞못 보는
청년의 명랑한 기분이 전염이라도 된듯
모두 입가에 적은 미소가 으르고 저들
눈에서는 반짝이는 영혼이 햇빛처럼
펼쳐지는 것을 나는 보았던 것이다.
여러해동안을 한 승강기에 그와 같이
타면서 그가 준 즐거운 기분은 온종일
나에게도 큰 위로를 가지게 했다.

그 청년이 기독교인이었는지
아닌지는 찾아볼 기회가 없었지만
확실히 그는 남에게 즐거움과 소망을
행동으로 보여준 기독교인의 자세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육신의 눈은 못보지만
그의 보는 세계는 한계를 가진 우리
눈 뜬 사람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광대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존재로
밖에 상상되지 않을 터이니 미운 것.
추한 것을 모르는 그의 세계는 정녕
우리가 갈망하는 유 토피아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면 도서관 건물이 커졌기 때문에
다시는 명랑한 아침의 즐거움을 찾을
길이 없는 것이 저의 이 섭섭하기도 하고
옛날이 그립기도 한 것이다.

나는 가끔 나 혼자 승강기를 타게
될 기회가 있으면 "주여 제게 영혼의
두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세계를
항상 바라보며 이 엄한 세상을 걸어

"火口"

한 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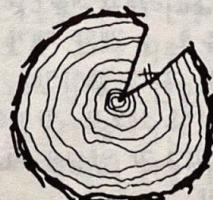
화구에 불을 지펴
헐헐 타는 불꽃 속에 모든 잡념을 불사른다
지로움과 슬픔의 과거를 태운다

통나무는 뜨겁게 타오르고
한여름 찌는 해변가의 더위마냥
식을 줄 모르는 청춘의 정렬마냥
추운 겨울 날에 안식처를 이룬다

대대로 전해진 원시인의 정서를
불 타는 화구 속에 나는 보고 있다
얼어붙은 감성을 끝이 매마른 정서를 태우듯
나는 실성한 사람마냥
불꽃 속에 마음을 불태운다

젊으신 나이에 떠나신 시모님에 대한
끌내 나누지 못한 작별의 인사도
임종의 시각도
태평양을 사이에 지내온 긴 세월도
안덩이 죄의식으로 뭉쳐
타오르는 불꽃 속에 연기와 함께
저 높은 대기속으로 승화시키고 싶어

나무는 타서 한줌 재가되고
인간도 한줌 흙으로 돌아가.



..... 그리운 조정자 선생님

김 정현

그리운 조정자 선생님!

이제는 영원히 선생님의 답장을
받아 볼 수도 만나 볼 수도 없으나
항상 내 마음 속에 계신 선생님을
그리며 씁니다.

달리는 자동차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다정한 선생님의 모습이 자주
내 젖은 두 눈에 비치고 눈앞이 으려져
핸들이 흔들립니다. 선생님께서
시카고 아이웨이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사랑하는 아드님 동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나셨다는 비보를 들었던
그 때에 놀랄과 슬픔이 육년이 지난
오늘도 새로운 고통으로 가슴이 저며
옵니다.

어쩌면 세상 떠나시기 몇 달전에
시카고에서 오셨을 땐 참으로 반가워
아무 말도 못드렸던 것 같습니다.
연수 정 목거리를 손에 쥐어주고
떠나신 선생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
한데 그것이 마지막이 되리라곤 상상도
못 했습니다. 작년 봄 십오년만에
귀국하여 찾아간 서대문 밖 산속에
말없이 잠드신 선생님의 묘 앞에서
여우한 마음 달랠 길이 없었읍니다.

제가 선생님을 처음 뵈 1955년
3월 꿈 많은 대학생활 첫날 정치외교학과
주임교수로 소개된 때가 생각납니다.
미국에서 국제 정치학을 전공 하시고
돌아오셔서 새로운 학문으로 한국
여성에 익고 간 양성을 고육하시던 때
였읍니다.

그 후 스승으로서의 존경심과
인간적인 따뜻한 정이 쌓이면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대학 사년을
보내는 동안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국제정치학을 강의하는
동안 강대국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약소국의 희생되는 과정을
보았고 하나의 민족이 독립하는 투쟁의
역사를 배우면서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시야를 넓게 해 주셨습니다.
연서 강의를 하시며 열심히 영어
실력을 쌓게 해 주셨고 유엔 기구의
활동을 설명하실 때엔 모의 유엔총회도
했던 생각이 납니다.

방과후엔 고양서적을 찾으러 같이
책방에도 빠다녔고 미국 유학 시절에
재미있는 이야기도 끝없이 들었읍니다.

그 후 선생님께서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 가셔서 연구하셨고 몇년씩마다
캐나다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시고
시카고를 마지막으로 귀국 준비를 하고
계셨었지요.

선생님이 안계신 모교에 어전한
마음을 안고 20여년만에 찾아간 이화
동산을 울창한 나무가 캠퍼스를 뒤덮어
제가 다닐 때에 본 문리대 앞에
황홀하게 피던 목련나무가 보이지
않았읍니다.

선생님과 동창이시고 가장 가까우
셨던 김 세영 문리대 학장님을 방문
하였읍니다. 만나 뵙는 순간 깊은
감회에 쌓여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읍니다. 김 세영 학장님께서는

김옥길 명예 총장님의 고신문의 일기

최신혜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은 차들이
다니는 서울 시내를 벗어나는데는 상
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곳만 빠져 나
오면 곧 한가한 시골로 가는 길로 들어
서게 된다. 길이 크고 잘 닦아져 있어
참으로 끼끗하다고 느꼈다. 우리 일행
(나와 유연담, 그리고 이동우 선배)
는 수안보, 김총장 선생님이 계시는
시골로 향했다. 양쪽에 나란히 서있는
뾰루라나무, 그 사이로 내다보이는 농가
는 무척 한가스럽고 아름다웠다. 단지
눈에 거슬렸던 것은 그 농가의 지붕들이
모두 알록 달록 각가지 색의 양철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안정되고 평화스런
녹색전연에 부조화를 일으켜 나같은
사람에게 공연한 불안정감을 느끼게
했다. 그곳에서 마땅히 있었어야 할
초가집들을 상상하며 그 아름다움을
망가뜨린 사람들을 원망할 수 밖에
없었다. 한 여름이라 군데군데 원두막
이 있고 그 앞에 참외들을 펼쳐놓고
팔고들 있다.

수안보쪽으로 접어들면서 경치는
더욱 아름다웠다. 산을 끼고 구불구불
돌아가는 길이며 그 옆으로 흐르는
개울물, 모두 잊어버렸던 옛일들을
생각키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멀찌감
치 보이는 논둑에 소들이 한가이 서성
거리고 예쁜 송아지는 어미소 옆을
왔다갔다하며 졸고 있다. 농부들이 막
점심을 꺼내놓고 먹으려 둘러 앉은 것이
보인다. 뭔 앞치마를 두른 시골 아낙이
점심 바구니를 이고 가는 모습까지
상상해보니 소박한 한국의 농촌 풍경이
아닐수 없다. 세 시간쯤을 간 후 우리

차는 큰 길을 벗어나 작은 샛길로 접어
들었다. 이 길이 바로 문경세재 가는
길이라고 한다. 길 어구에서부터 높은
산을 위로하고 높직이 서있는 기와집이
보였다. 작은 길인데도 세멘트 포장이
선생님 댁 앞뜰 훨씬 지나서 일간문
까지 되어있어 의아했더니 나중에
선생님께서 그 내력을 말씀해 주시며,
우연하게 덕을 보셨다고 했다.
샛길은 포복 길이고 그 양쪽엔 제멋대로
자라난 소나무들이 서있는데 그 제멋이
그런대로 보기 좋았다. 조금을 가니
큰 돌기둥문이 나왔다. “금난서원”
이라 써있다. 차는 그 문을 들어서서
다시 한국식 대문까지 지나 본채
뒷마당에 멈추었다. 사방을 둘러보니
모두 산이다. 집을 둘러싸고 있는
산은 그리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꼭
이 집을 보호하기 위해 둘려진 평풍
같았다. 특히 이러한 산을 나는
실직로 한번도 본 적이 없고, 다만
동양학 같은 데서만 눈에 익은 산이다.
푸근한 느낌을 주면서도 그 속에
끼어있는 예리하게 각기운 듯한 바위들
때문에 엄숙 아기도 했다.

선생님은 갑자기 나타난 우리
일행을 반겨주셨다. 인자하시고
털털하신 미소에 우린 마치 친정에 온
기분이었다. 여장을 풀고 선생님의
안내대로 이곳 저곳을 산책하며 감탄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그 주위를 너무
아름답게 꾸며 놓으셨다. 전문적인
정원사 못지않게, 자연을 자연 그대로
살리며 그 곳에 가미하여 만들어 놓은
주위는 낙원 같았다. 이곳을 소개하지
않고는 지날 수가 없어 대강 써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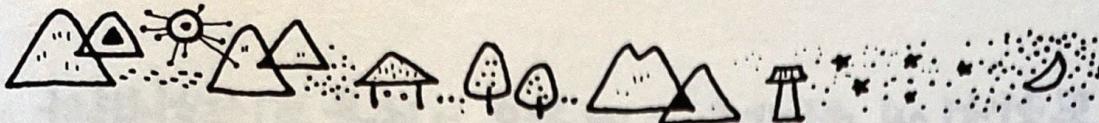
부드러운 햇살과 푸른 바다

우선 본 채의 정가운 데와 대문과
연결이 되어 보이는 가장 높은 봉우리
가 "신선봉"이라 일리주셨다. 본 채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높이 원두 막같은
정자가 서있다. 선비들이 몇명 둘러
앉아 시라도 읊는다면 적당할 곳으로
생각되었다. 그곳에 앉아있노라니
시원한 바람이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고
저 아래로 산과 길이 모두 눈앞에
내려다 보인다. 이 정자 바로 앞엔
연못이 있고 가운데 분수가 뿜고 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끌어서 이 연못
의 물뿐 아니라 집안의 물을 다 쓸 수
있게 만드셨다. 연못에서 흐르는 그
끌으론 빨래터까지 만들어 놓으셨다.
정자에서 내려와 분수를 끼고 옆길로
가면 작은 동굴 모양이 있는데 사람
하나 들어가 앉을 만 했다. 같이 동행
한 선배님이 농담을 하시며 그 곳에
후배를 앉여 놓고 교육시키는 곳이라
아길래 내가 그 속에 웅크리고 들어가
흔 개받는 시늉을 해보며 한참 웃었다.
그곳을 지나면 Hawaiian Hut 같은
것이 나온다. 그 안에는 의자들 각
hammock 도 있어서 낮잠자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다. 그 앞으로 역시
개울 물이 풀랑풀랑 흐르고 그 곳에서
또 조금 내려가면 큰 picnic 장소
같은 것이 있는데 이곳은 본 채와
나란히 위치해 있다. 이 곳은 개울 물
끌 빨래터가 되는데 cook-out 한
그릇 까지 씻을 수 있어 면하게 되었다.
이 picnic 장소엔 또 몇개의 그네도
있고 한쪽엔 평상도 있고, picnic
table 도 있고 좀 습속으로 가면
hammock 이 두 개 걸려 있다. 빨간
hammock 에 누워 보니 아늘이 나무

가지 사이로 보이고 나는 구름에 얹혀
있는 기분으로 그대로 잠이 들 것 같은
평온함을 느꼈다. 이 아름다운 자연
과 너무 나도 잘 정돈된 주위에 완전히
압도 당한 기분이었다.

다시 그곳을 떠나 집 앞을 지나서
가노라면 자그마하고 예쁜 연못이 있고
거기에 별채가 하나 있다. 별채 옆으로
작은 샷문이 있고, 대문 양쪽으로
행낭방같은 방들이 몇개 있다. 본 채는
기와집인데 이 집의 기와의 특이한
점은 기와 끝마다 모두 이화대학
교포가 찍혀있는 것이다. 본 채
대청에 앉으니 시원한 바람이 저 먼
산에서 불어오고 그곳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란 절경이라 아니할 수 없다.
첩첩이 둘러싸인 산과 계곡, 그 사이
사이에 조금씩 보이는 논과 밭 그리고
몇몇 농가들 하며

저녁 후엔 선생님께서 다
별구 경을 하러 나오 라 하셔서 뒷마당
에 나가 앉았다. 유난히 별이 많이
나와 있는 밤이었다. 북두칠성,
북극성 그리고 은악수가 보인다.
보통 때 좀처럼 유심히 올려다 보는
일이 많지 않았었던 나! 마냥
올려다 보고 있노라니 내가 그 속에
들어있다. 나와 아늘 외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고 수많은 반짝이는 별들을
나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듯 윙크를
한다. 그리고 있노라니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서로들 할 말들을 잃고
각기 자기들의 생각에 잠겨있는 것
같았다. 아침에는 일찍 산으로
산책을 가신다고 일찍 자라고
하셨다.



공기가 좋아서인지 잠도 잘 았다.
때때로 옆방 앞에 걸려있는 풍경소리와
물흐르는 소리로 자는 동안
달콤한 꿈을 꾸게 했다. 한참을 자노
라니 밖에서 인기척이 나서 얼른
일어났다. 아침 산책에서 빠지게
될까봐 걱정이 되서였다. 옆사람들
까지 깨우며 법석을 아니 나를 놀리며
야단들이다. 그때 시간이 5:30 A.M.
이었으니 내가 놀림감이 안 될 수가
없었다. 선생님은 벌써 일어나서서
coffee를 준비하고 개시고, 정총장
선생님도 준비를 다하시고 올라
오셨다. 정총장 선생님을 위시해서
우리 일행 6사람은 아침 등산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산을
오른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나는 생전 맛보지 못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걸으니 무척이나 경쾌했다.
차차 밟아오는 얇은 황금빛의 온 산을
누비며 넘쳐오고 있는 것을 보노라니
그 황홀하고 엄숙함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

우리 앞으론 아침 안개가
지나가고 오던 길을 돌아보니, 멀리
보이는 개곡은 아직도 아침 잠에 들어
있는 듯 했고 아침 이슬을 머금고 눈을
뜬 야생초들과 나무들은 자연 그대로의
미를 과시하고 있었다. 일간문 까지
가서 좀 쉰 다음에 우린 돌아오며
모두들 큰 소리로 노래하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찬미하고
창조주의 놀라운 솜씨에 더욱 감탄을
하며 찬송을 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얼마쯤 지난후에 이번엔 김 총장선생님
의 인솔 아래 또 산책길에 나섰다.

세벽에 갔던 일간문 까지는 차로 가고
(일간문은 충청도와 경상북도의 경계가
되는 곳이다.) 그곳 서부터 이간문 까지
의 산책이다. 그곳은 더 아름다운
것이 길이 그냥 흙이었고 자연도 좀
사람들에게 덜 시달린 것 같았다.
맑디 맑은 개울 물이 계속 길을 따라
흐르는 데 그 개울 가의 돌들이며
주위의 나무들 까지도 말할수 없이
아름다워 그 물 속에 첨벙들 어가 마냥
물장난을 하며 놀고 싶을 정도이다.
아마 먼 옛날에 선녀들이 이러한 곳에
목욕을 하러 내려왔을지도 모는다는
생각까지 든다. 이곳에 오니 잡음은
없어지고 마음이 순수해지며 모든
근심 걱정이란 다 어디로 사라진 것
같고 가볍고 즐거운 마음만 남아있다.
이곳은 사람을 깨끗하게, 순수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는 모양이다.
이곳에 사노라면 나도 좀 선해질 것
같다. 지로움이 있으면 풀어질 것
같고 아픔이 있으면 나아질 것 같고,
잘못자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이곳에 오면
잘 잔다니 이곳은 신선이 사는 곳인양
싶다.

점심후 우린 아쉬운 마음을 안고
그곳을 떠나야만 했다. 큰 문에 쓰여진
"금난서원"을 나서며 선생님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다. 참으로 대범하시면서도
인자하시고 정이 들게끔 만드시는 분이
시다. 순순한 산천, 아름다운 자연과
사는 분, 그분은 그곳에 잘 어울리시는
분이라 생각하며 그분에게서 자연과
같이 순수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
이려노라니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친정같이 푸근한
곳, 친정 어머님같이 푸근한 사랑을 P.20 계속

동창회에 첫발을 드려놓은 그날을 회상하면서

유연담

구름 한점없이 무르익은 어느 한 여름, 아름답기로 이름난 아나폴리스 해변가
근처에 자리잡은 선배댁에서.... 갓난 아들을 수 위밍 풀 옆에 놓여놓고 나는
남편과 풀에 뛰어들어 마음껏 즐겼던 그 날, 지금부터 16년전, 1968년 8월 10일
이화여자대학교 동창회 총회 날이었고, 그 댁은 당시 회장이었던 임명순 의사와
오창희 목사님의 자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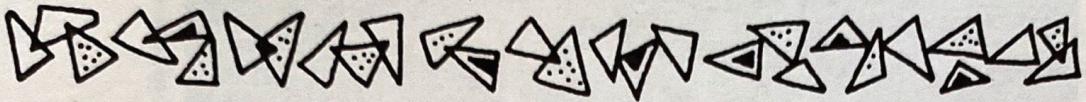
미국에 온지 5년 정도밖에 앉된 나에게는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그 날과 그 부부들이었다.

회장 본인은 뇌출혈로 반신이 마비된 상태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이었으나, 자기때문에 회의를 연기하지 말라는 당부로 당시 부회장이신
이순영 선배께서 회의를 소집하여 수위밍 파티를 겸했던 것이다. 회의를 시작한
후에 이 사실을 알게된 나는 송구스러웠고, 죄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나 회의도 중
오 목사님께서 병원에 전화를 하시고, 세세히 회의 진행을 보고 해 주시고,
회장으로써 회원들에게 아시고 싶은 말씀을 다 들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며,
회장을 대신하여 수고하시는 이순영 부회장께 감사의 표시로 자기대신 키-스를
해드리라고 부군께 부탁을 드리는 등, 두분이 나누시는 그 대화와 마음 가짐이 너무
아름답고 로맨틱하여서, 보고 듣고 있던 나는 가슴에 몽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회의전에 수위밍 파티며 또 회의 분위기며, 회의후에 음악을 즐기시는
분들, 댄스를 하는 분들, 그곳에 모인 모-든 회원들은 마냥 즐겁고, 즐거웠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고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다.

반신불수 가 된 상태의 환자가 있는 집, 식구들의 침울한 상태, 집안의 침통한
분위기가 오히려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나에게는, 진실로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다.

두 부부의 그 명랑하시고, 밝고, 모든 일에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시고, 적은
일에까지 성의와 모든 열성을 다해 보여주시던 그분들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지난해, 1983년 11월 5일, 뉴욕에서 있었던 이화국제재단의 Annual Board
Meeting에 이어서 동창회가 주관하는 Annual Banquet에 도서관 건립기금
전달차 참석했을 때, 뜻밖에도 창회목사님을 만나뵙고 너무 반가웠으며, 우리 일행은
이미 지난날이 된 그때를 회상하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임명순 회장께서는 의사 개업을 하시고, 시간에 쫓기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환자를 돌보시다가 자신의 건강을 잃게됐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거의 완쾌된 상태에서 이 지방을 떠나 아드님이 계시고, 또 날씨가 따뜻한 곳, 나성으로 이사를 학신지가 5.6년이 되어간다.

뜻밖엔 만난 목사님께 주위를 둘러보며 임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하고 여쭤더니 갑자기 추운 곳에 악서 감기드실까봐 같이 못오셨다고 하시는 오목사님 얼굴에는 이미 부인을 미쓰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다. 그분들이야말로 연앙새와 같은 아름답고, 정다운 부부임에 틀림없다.

70층 높이에서 80을 바라보시는 오목사님은, 외모는 말할 것 없지만 젊은 사람들이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에너제틱하시며, 이학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분의 마음과 열성은 이학의 딸들인 우리들이 그저 부끄러움만 느낄뿐이다.

한쪽의 그림자 같은 아름다운 아나풀 리스 저택에서 사실때, 본고에서 왕래하는 모든 손님들은 그 댁에서 접대되고, 억싱톤, 버지니아 지역에서 동창회 모임만 있다하면, 큰 모임, 작은 모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제일 먼 거리에 사시는 분이 제일 먼저 오셔서, 가까운 거리에서 늦게 나타나는 우리들을 항상 웃음으로 맞아 주시던 일, 회의에서는 모교 초식, 국제재단소식 등을 열심히 전해 주시며, 물질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아낌없이 이학을 위하여 그 때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봉사하시는 부부... 이학하면 즉시로 머리에 떠오르는 물룡 한 분들이 내 주위에 많이 계시다. 이 오목사님 부부는 존경하고, 따르고 싶고, 본을 받을 선배님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귀한 분들이시라고 생각한다.

16년전, 내가 만들지 못하는 맛있는 한국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절묘의 기회라고 해서 이학동 창회에 밭을 더덕놓은 후 이날까지 끼어서 일을 해왔다. 제2회 회장때부터 시작하여 결국 12회 회장직을 본인이 맡고 보니 지난날 역대 회장님들 각 임원들의 협조가 오늘의 억싱تون 이학여자대학 동창회의 위치로 만든 결실이라고 믿는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이학의 딸들은, 역대 선배님들이 우리들에게 보여 주셨듯이, 진실하고, 온유하며, 겸손하게 봉사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들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주님께 감사기도를 드린다.

도서관 건립기금 의상쇼



1983년 10월 29일 Sheraton National Hotel에서 도서관 건립기금 모금을 위하여 이화의 졸업생 데자이너 임수영씨와 이경자씨의 작품 의상쇼가 성황리에 이루어 졌습니다.

350여명의 청중이 이날의 쇼를 즐겼습니다.



임수영씨의 작품



이경자씨의 작품

김옥길·김동길 교수님의 워싱턴 방문

안순정

현재 이대 명예총장으로 계신 김 옥길 선생님께서는 뉴욕의 Uni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수여하는 유니온 메달 수상자로서 그 수상식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작년 3월말에 뉴욕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메달은 세계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영예의 메달로써 김 옥길 총장선생님의 위대하신 업적을 인정함이며 그 입증인 것입니다. 이학대학은 이렇듯 훌륭하신 교육자들을 통하여 현재에까지도 달한 것입니다.

1976년 미국 독립 20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학국제재단 이사회는 그 총회를 이 나라의 수도인 워싱턴에서 개최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총장으로 계셨던 김 옥길 선생님께서는 이 총회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 후 7년만에 다시 명예총장으로 워싱턴을 방문하셨습니다.

이학대학은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급속도의 발전을 보았으며 학생수의 급증으로 도서관을 신축 중에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10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이학는 이 도서관 건립기금을 위한 모금 운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돋기 위하여 김 옥길 총장선생님께서는 수상식 이후에 미주의 몇 주요 도시를 방문하시는 일정중의 하나로 워싱턴에 오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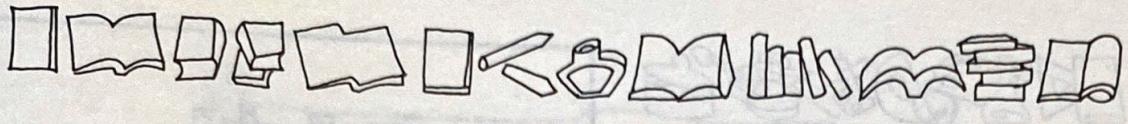
지난해 4월 16일 정도에 이학의 가족들은 김 옥길 총장선생님을 내쇼날 공항에서 영접하였읍니다. 김 총장 선생님의 동생이신 전 연세대학 부총장 김동길 교수와 저명하신 서예가

난곡 김 응섭 선생님 두분이 동행하셨습니다. 귀빈들과 환영객들은 신 낙군 동창대에 초대되어 정성으로 마련된 오찬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읍니다. 총장선생님께서는 많이 수척하셨으나 오히려 그때문에 더 젊어 보이셨읍니다. 공공 좌석에서 그 다지도 근엄하신 분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도 따뜻하시고 인자하심에 더욱 존경의 마음을 금할 수 없었읍니다.

나는 어려서 김동길 교수님께 배운 제자로서 이제 중년의 나이에 옛 스승님을 직면할 때 마음은 그 옛날의 소녀로 되돌아가 있었읍니다.

이날 저녁에는 전 동창회장이신 이동우 선배님 댁에서 워싱턴 동창회 주최로 김 옥길 총장선생님 일행의 환영회가 있었읍니다. 난곡 선생님께서는 이학를 위하여 수많은 작품을 기증해 주셨고 이 자리에서 많은 동창들은 귀한 콜렉션을 할 기회가 있었읍니다. 난곡 선생님께서는 그령이심에도 스미소니언 박물관 관람들을 즐기시는 모습은 마치 젊은 이를 능가하셨읍니다.

17일에는 아메리칸대학 건너편에 있는 Metropolitan Memorial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워싱턴지구 이학대학 동창회가 주최로 한강연회가 있었읍니다. 회장의 충책을 맡고 모든 준비만개로 너무 애쓰셔 10파운드나 줄었다는 유연담 회장의 사회로 시작하여 김 옥길 총장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새로운 교육의 이념을 익히어
젊은 세대에게 총장직을 인계하시고
나서 풍경이 아름다운 문경세재에
온퇴하시고 지금은 산수를 즐기신다고
하셨으며 그곳을 지나는 동창들은
언제고 환영하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요·순·우 시대에나 있을 법한 얘기인
것같습니다.

이어 김동길 교수님의 강연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동길 교수님을 소개
하면 이분의 많은 저서중에는 베스트
셀러도 여러권 내셨을 뿐 아니라 한국의
각지에서 인기를 집중하기는 지식총연사
이십니다. 몇해전에 Leo Basealia
라는 미국 교수가 쓴 'Living Loving
and Learning'이라는 베스트 셀러를
읽고 감명을 받은 바 있었는데 김교수님
과 Basealia는 서로 상통하는 점이
너무나 많다고 느꼈습니다. 위의 저자
역시 연사로서 TV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김동길 교수님의 강연글자를
요약한다면 한국이 남북을 통일하려면
남북한의 모든 동포들이 다임을
합해야만할 뿐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과 포들 까지도 힘을 합하여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조국평화를 이루는 데 공헌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이었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초점을 관통하시는 술법과 그
유모어는 만인을 계속 웃기시고 이
시대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신랄하게
파악내시는 박력이 있으신가 아면

통달된 동서문학의 인용은 비상한
기억력과 넓은 지식에서부터 오는 깊은
철학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쏘크라테스는 편견의 풍선을
터뜨리며 다닌다."라는 고각서의 한
구절을 옛날 김동길 선생님 시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편견과 가식을
터뜨리면 적나나한 현실이 남게 마련
이지요. 그 한구절의 해석은 지금 보면
김교수님 자신의 표현과도 같읍니다.
귀에 익은 어조에 우리도 줄줄이 외우게
하셨던 영시들을 이제 다시 선생님의
강연중에서 인용문구도 들을 때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곳에 가고 있음을
느꼈읍니다. 한 친구는 말했지요.
우리는 영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영문학을 선생님께 배웠다고. 나는
바로 그 점을 얼마나 즐겼던가 생각해
봅니다.

4월 18일에는 볼티모어 이대동창회
에서 김옥길 총장선생님 일행을
초빙하고 동창동 경주씨댁에서 만찬회를
마련했읍니다. 볼티모어로서는 극이
드문 동창회가 크게 성공을 보았읍니다.
식사후 당시 볼티모어 동창회장이셨던
이영숙씨의 사회로 총장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이어 김동길 교수님
자신이 치른신고 난과 시련에 간해서
말씀해 주셨읍니다. 볼티모어에서는
이미 여러사람들이 김교수님의 강연
테이프를 들어 명성이 알려져 있었읍니다.
황금의 웅변을 토하시는 김동길 교수님
께서는 인기를 한몸에 집중하고
계셨읍니다. 누구의 말을 빌리면
"만인의 연인"이시라고 합니다.



김 총장님 일행은 4월 19일에는
이순영 전 회장님 댁에서의 송별
오찬후 억성톤을 출발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볼티모어에서 급히 출발하시는
두 분 선생님께 작별을 해야만
되었읍니다. 이곳의 바쁜 일과들을
다 뒤에 던져두고 사흘 동안 스승님들
찾아 억성톤으로 볼티모어로 다닙니다
보니 작별은 서글프게 느껴졌읍니다.

김동길 교수님께서는 이화대학을
돕는 사명으로 수행하신 관계로
이십여년만의 미주 여행이시면서도
연세대학이나 사적인 집회를 모두
거절하시고 오로지 이화대학관계의
집회에만 시간을 주셨다고 합니다.

김옥길 총장선생님 남매간의
관계가 피차의 존경, 사랑 그리고
신뢰로 이어져 너무도 아름다운 인상을
우리에게 주셨읍니다. 두분의 인격과
고양위에 전혀 간심도 없으신 물욕이
두분의 구성요소이고 보니 물질만능의
이 시대와 사회에 살면서 스승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지요.

김동길 교수님께서는 11월에 다시
억성톤에 오셔서 강연회를 가지신바
있었읍니다. 여전히 많은 청중을
모으셨고 왕금의 웅변이셨읍니다.

재회



한순정

화살은 날라 낸륜을 낳고
옛 그 장은 그색을 잃었더라
판도락의 상자를 열어
화우들은 중년의 탈을 써야만 했다

아직도 젖은 세멘트의 내음과
석조전 지하실의 냉기는
그 감촉이 어직 피부에 느껴져도
이미 가신 스승님의 발자취 어디에...

무심히도 지내온 세월을
가로 놓인 대양을 말하기보다
나는 황소걸음으로 살아야 했다

재회의 시간을 짧고
대화는 느려도 뇌리에 스쳐가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현실이요
중단된 대학의 약속이였다.



역대 회장 기록

제 1회 회장 최 정임 1957년 9월 15일 처음으로 역성頓 근고에 동창회가
발족되었다. 회의 명칭은 "이학여자대학교 동창회 학부 지회"로 칭함.
임연 선정과 회칙 결정.

제 2회 회장 임 명순 1965년 5월 15일 이학 창립 80주년 기념 축하
보조금을 보냈음.

제 3회 회장 이 순영 1969년 6월 22일
(1) 1970년 처음으로 "이원"이 탄생.
(2) 장학금 설치.
(3) Ewha Dish 5개 이학동창의 모임에서는 요리를 다섯 가지 이상은
준비하지 않기로 결정함.

제 4회 회장 권 경주 1970년 10월 18일
(1) Baltimore 동창회 지부를 설치하다.
(2) 1971년 5월 9일(어머니날) Food Festival 을 갖고 들어온 기금은
장학금으로 보내기로 하다.
(3) 제2호 "이원"을 발간하다.

제 5회 회장 이 동우 1971년 11월 7일
(1) 1972년 2월 12일 연대, 이대 Valentine's 품 Party 를 갖고
기금은 모교를 위해 쓰다.
(2) 4월 22일 Kennedy Center Concert Hall에서 이 규순 지휘
Glee Club 합창단 방미 공연이 있었음.
(3) 제3호 "이원" 발간.

제 6회 회장 박 원정 1972년 11월 19일
(1) 1973년 3월 16일 금요일, Maryland 대학에서 무용 음악 공연을 가짐.
한국에서 온 이대동창으로 구성된 인원으로 이학 10년 발전 계획
모금 공연.
(2) 제4호 "이원" 잡지 배부

제 7회 회장 최 의숙 1973년 11월 17일

- (1) 1974년 4월 6일 Night of Columbus에서 이대 Spring ball을 성황리에 끝을 냈.
- (2) 1975년 3월 12일 이대무용단이 미주 공연차 G.W. Lisner Auditorium에서 'Super Star Jesus Christ'를 가지고 실력을 과시.
- (3) "이연" 5호 발간.

제 8회 회장 김 정자 1975년 6월 14일

- (1) 1976년 11월 5일, Statlea Hilton Hotel에서 창립 90주년을 기념하는 Banquet이 국제재단 Annual Meeting에 이어서 동창회 주관으로 가졌는데, 이대 미술과에서 보낸 도자기를 가지고 Bazaar를 열었음.
- (2) "이연" 6호 발간.

제 9회 회장 이 도실 1977년 6월 3일

1978년 4월 22일, 미국내에 있는 이대 음대 졸업생을 초청하여 Silver Spring Blair High School에서 음악회를 갖고 대성황을 이룸.

제 10회 회장 백 경진 1979년 5월 30일

- (1) 1979년 11월 24일 토요일, Forum Party Room을 빌려서 New York에서 활약하시는 동창 권 영전 Social Worker를 모시고 2세 자녀교육을 위한 Seminar를 가졌음.
- (2) 1980년 6월 14일 같은 장소에서 이 선택의사를 모시고 암에 관한 강좌를 가짐.
- (3) 주소록을 만들어 배부함.

제 11회 회장 강 정희 1981년 5월 2일

- (1) 100주년 기념도서관 건립기금을 위한, 이화 음악 무용 단의 공연을 Montgomery Blair High School에서 성황리에 마쳤음.
\$7,000여의 기금을 마련하여 국제재단에 전달함.

제 12회 회장 유 연담 1983년 2월 22일

- (1) 4월 17일 김 옥길 총장께서 New York에 있는 Union 신학교에서 수여하는 유니온 메달 수상자로써 미국에 오시는 길을 이용하여 100주년 기념도서관 건립기금을 위한 김 옥길, 김 동길 두 교수의 강연회가 있었다. 난곡 김 응섭 서예가의 서예 전시회도 회장이 동우 동창회에서 가졌다.

- (2) 10월 29일 창립 100주년 기념도서관 건립기금을 위한 Benefit Dinner & Fashion Show를 Sheraton National에서 성대히 끝을 내고.
기금을 국 제재단에 전달했다.
- (3) 회칙을 개정하여 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새로운 동창회 회칙을 작성할 예정.
- (4) 제7호 "이연" 발간.
- (5) 학년 대표 제를 설치.

동창소식

*57년 가정과 배 원경씨
1982년 11월에 서거하셨음을
알립니다.

십여년동안 동창이 아니시면서 동창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 시던 의사
박 간부 씨 부인 박 경옥 고문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58년 영문과 명 신석씨
뇌일혈로 고생중에 개시는데 많은
차도 가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한 예경 선배님의 부군 김 성덕 목사님
께서 "구름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란
설교집을 발간하셨습니다.



P.6 계속

큰 장악금을 의사하시고 "조 정자고수 기념 장악회"를 마련하셨습니다. 또한 새로 크게 건축하는 도서관 건물 속에 "조 정자 고수"의 이름이 새겨지는 동판도 마련하시는 등 선생님을 기리는 사업에 전력하시는 것을 보고 존경심과 기쁨을 안고 왔습니다.

지금 정의각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후배들 과 선생님이 가르치신 많은 제자들이 선생님이 쌓아놓으신 기초를 딛고 일어나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인식하고 우리민족의 앞날의 번영을 위하여 노력하며 올바른 인생을 걸어가는 한 선생님은 와롭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을 사신 선생님 이지만 사랑하는 친구, 제자들 가슴 속에 아름답게 남아있는 한 선생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이제 제 소원은 선생님의 기념 사업을 길이 유지하기 위하여 해외에 있는 동창들이 협력하여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춥고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옵니다. 세월이 으르면서 아픔과 그 통의 기억은 사라지고 즐거운 추억 속에서 행복을 찾아봅니다.
선생님 평안이 잠드십시오.

1984년 3월

사랑하신 제자
김정연 올림

P.4 계속

나가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나도 저 눈못보는 소경이 남에게 즐거움과 소망을 안겨주듯 나도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무엇인가 주면서 살 수 있는 생을 가지게 해 주소서." 입속으로 이런 기도를 조용히 드리며 아루를 지나게 된다.

1984년 2월 19일

이순영

P.9 계속

느끼게 해 주시는 분, 다시 빙계 될 날을 기대해 본다.

1983년 7월

최신혜



1984년도 동창회 임원 명단

고문 : 박 원규 윤 주덕 최 제창

임원

회장 : 유 연담

부회장 : 김 경애

총무 : 고 문자

서기 : 이 경자 조 규연

회계 : 정 기란 이 계영

사업부 : 신 낙균 윤 용범

문학부 : 이 도실 김 민애

*(최 신예 조 인숙 한 춘정 김 미혜 윤 성숙 이 상운)

설익부 : 김 정연 유 승근

*(이 순영 김 순악 최 의숙 백 경진 방숙자 권 경주
이 동우 강 정희 박 원정)

학년대표

23년도 졸업부 터 54년도 졸업까지	강 정희
55년도 - 58년도	이 동우
59년도, 60년도	박 명원
61년도	강 월순
62년도	김 대유
63년도	김 미혜
64년도	홍 성자
65년도	조 성임
66년도, 67년도	김숙현
68년도	이 현순
69년도	윤 성숙
70년도 - 73년도	홍 종옥
75년도 - 78년도	구 순주
79년도 - 82년도	윤 미경